

'펜폴즈 180주년 기념 한정판, 펜폴즈 와인메이킹의 정수'

펜폴즈 빈 180 카베르네 쉬라즈

PENFOLDS BIN 180 CABERNET SHIRAZ



지역	호주 > 남호주 > 쿠나와라		
포도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57% 쉬라즈 43%		
알코올	14.5%	용량	750ml
테이스팅 노트	<p>깊고 생동감 있는 보랏빛 레드 컬러입니다. 단번에 쿠나와라, 펜폴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카베르네-쉬라즈 블렌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p> <p>이국적인 매력이 어우러져 유니크한 향과 맛을 선사합니다. 파르트라미 같은 '육향'이 강렬하게 퍼지며 새콤한 중동의 향신료 뉘앙스가 느껴집니다.</p> <p>철광석, 카본 블랙과 같은 깊은 향들이 '쿠나와라의 붉은 흙' 특성을 연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블루베리와 블랙베리의 조화가 돋보입니다.</p> <p>향과 완벽히 일치하는 맛이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쫄깃한 탄닌과 오크와 산미가 풍부하고 벨벳같은 질감을 선사합니다. 장기 숙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중반부부터 관대하고 풍부하게 맛이 펼쳐집니다. 거친 느낌이 없이 다양한 풍미가 이어지고 잔 속에서 깊이감이 더해지며 오랫동안 입 안에서 여운이 지속됩니다.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와인으로 카베르네도 쉬라즈도 아닌, 강렬한 쿠나와라의 독특함을 표현합니다.</p>		
페어링 TIP	붉은 육류 / 단단한 치즈 / 훈제, 염장음식 /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빈 180은 펜폴즈의 설립 18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에디션입니다. 18세기에 걸친 와인 제조의 유산은 문화에 의해 길러지고 선구자적인 열정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빈 180'은 2021 빈티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유명한 펜폴즈 포도원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남호주 쿠나와라 블록 5에서 재배된 쉬라즈와 블록 10에서 재배된 카베르네 블렌딩 와인입니다. 이 블록들은 그랜지 뿐 아니라 빈 707 카베르네 소비뇽 월리티에 꾸준히 기여해왔습니다. 2021년 쿠나와라 빈티지는 기록상 가장 강력한 빈티지 중 하나로 21세기 뛰어난 빈티지와 제품으로 인정받을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손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았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